

평범한 하루도 황홀한 일상으로 변화시키는 힘
 어제와 다른 나를 창조하는, 독서의 지혜를 배우다

추천도서_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이희석 저)

근래 출간되는 책 중 자기계발서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유독 '30대'를 겨냥하여 저술된 책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부터가 평생 공부의 갈림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 * 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30대'라는 타이틀이 붙지는 않았지만 30대 초반의 저자가 왕성한 독서경험과 실생활 적용을 바탕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공부의 의욕이 점차 퇴색하면서도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은 나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

저자는 '나는 Leader를 꿈꾸는 Reader이다.'라고 말하며 독서를 통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되자고 말한다. 이 '기본'은 사고력의 기초를 뜻하는데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정보의 획득이 아닌 사고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역설한다. 독서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공부의 한계를 느껴 독서의 즐거움을 놓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도 독서를 하다보면 단순한 한 권을 빨리 다 읽겠다는 성과주의에 빠져 정작 무슨 내용이었는지조차 생 각이 잘 나지 않아 독서의 효과에 회의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 * 지혜로운 인생의 조연자이자 해결사, 도서

저자는 독서의 효용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우리 인류의 선배들이 고민하였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 연구하고 훌륭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보는 책이라고 말한다. 즉, 고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긴 내 생활을 되돌아보면 결혼 5년차인 초보아빠로서 많은 이전 부모세대들의 경험과 지식이 녹아있는 육아서 를 통해 훌륭한 조언들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미 다독을 실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다른 방법보다 독서를 바로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NFR

